

농식품부 '15년 예산 및 기금 14조 431억원 확정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 12. 4)

▣ 국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 43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940억원 대비 509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14년 예산과 대비하여 4,060억원(3.0%) 증가한 수준이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외형적인 규모 조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보완되었다.**

- 가축질병의 살처분방식 개선(예방적→선별적)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소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 예비비적 성격의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 쌀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재해대응 SOC 투자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 다만, 한중FTA에 대비하여 발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 한중FTA 국내보완 대책은 발농업 직불금(1,929억원), 농기계임대(220억원), 원예시설현대화(1,468억원) 등 일부 선제적인 지원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내년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16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국회에서 확정된 농식품부의 '15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 ① **농식품의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반영**
 -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127억원), 산지축산형농장(50억원) 등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 농식품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ICT융복합(323억원), R&D(2,242억원), 생명산업(568억원) 등 농식품의 **新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② 쌀관세화, 영연방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의 확대
 -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이모작 직불금의 단가인상(40만원/

ha→50, +151억원), 농지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 단가인상 및 물량확대(3만원/3.3㎡→3.5, +535억원),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2.5%→2 등 131억원) 등을 추진하고,

* 금리인하 : 농기계구입자금('14년 3% → 정부안 2.5% → 최종 2%)귀농귀촌정착지원('14년 3% → 정부안 2.5% → 최종 2%)6차산업창업지원자금('14년 3% → 정부안 2.5% → 최종 2%)

-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5억원), 쌀소비활성화(+5억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3.9억원), 농산물원산지관리(+4억원), 농기계임대(+10억원) 등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 영연방FTA에 대비하여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500억원), 축산자조금(+10억원),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등 축산 관련 자금 금리인하(+43억원) 등을 추진하였다.

* 금리인하 : 축산경영종합자금('14년 3% → 정부안 3% → 최종 2%)
긴급경영안정자금('14년 3% → 정부안 3% → 최종 1.8%)

③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빈발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190억원), 배수개선(+210억원), 대단위농업개발(+130억원), 다목적용수개발(+250억원) 등 농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사업 투자를 확대하였다.

○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가축방역(+38억원), 축사시설현대화(+1억원)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④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 확대

○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밭농업직불의 적용품목을 현재 채소류 26개 품목에서 잡곡·채소·과수 등 밭작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 ha당 25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ha당 40만원을 지원(+801억원)하는 등 농업 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사고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2.1억원), 농기계등화장치 지원(+3억원) 등 배려농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 농식품부는 확정된 '15년 예산이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향후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나감으로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고 1

'15년 농식품부 예산 개요 및 주요 특징

1. '15년 예산 및 기금 개요

■ '15년 총지출 규모는 14조 431억원으로 '14년 대비 4,060억원(3.0%) 증가

○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6,087억원으로

'14년 대비 3.0% 증가

○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 4,344억원으로

'14년 대비 2.9% 증가

▣ '15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기금)안의 총 지출 규모는 19.3조원으로 '14년 대비 3.1% 증가

○ 국가전체총지출(375.4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분야의 비중은 5.1%,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중은 3.7%로 지난해보다 각각 0.2%, 0.1%p 하락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전체	전년대비		농식품 분야		전년대비		농식품 부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10	2,928,000	2.9	172,571	2.4	5.9	146,738	0.3	5.0	
'11	3,091,000	5.7	176,354	2.2	5.7	148,644	1.3	4.8	
'12	3,254,000	5.3	181,322	2.8	5.6	154,083	3.7	4.7	
'13	3,420,000	5.1	183,862	1.4	5.4	135,268	△1.1	4.0	
'14	3,558,000	4.0	187,334	1.9	5.3	136,371	0.8	3.8	
'15안	3,754,000	5.5	193,000	3.1	5.1	140,431	3.0	3.7	

▣ 식품업(8.8), 농업생산기반조성(7.7), 농촌 개발·복지증진(6.7), 농가소득·경영안정(6.2), 양곡관리·농산물유통(1.1), 기타사업비(59.8) 등은 증가

* 수출대체 사업체계 전면 개편(5,110억원→5,867, +757)

** 쌀소득보전고정·변동직불(+710억원, +1,441), 농업재해보험(+152)

*** 농림축산검역본부이전(+376)

○ 반면, 농업체질강화(△3.9%)는 감소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1,000억원), 해외농업개발(웅자)(△160)

(단위 : 억원, %)

구 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371	140,431	4,060	3.0
◇ 사업비	132,881	136,860	3,979	3.0
▣ 농업·농촌	124,528	127,451	2,924	2.3
○ 농업체질강화	31,059	29,844	△1,215	△3.9
○ 농가소득·경영안정	23,230	24,663	1,432	6.2
○ 농촌복지증진	4,277	4,565	288	6.7
○ 농촌개발	12,172	12,664	492	4.0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3,656	34,031	375	1.1
○ 농업생산기반조성	20,133	21,685	1,552	7.7
▣ 식품업	7,723	8,401	678	8.8
▣ 기타사업비	631	1,008	377	59.8
◇ 기본적경비	3,490	3,571	81	2.3

▣ 품목별로는 쌀산업(9.1%), 식품(8.8)은 증가한 반면, 축산*(△3.8), 공통 등 기타(△0.3%)는 감소**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1,000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214), 축산분뇨처리시설(△93)

** 한국농수산물대학이전(△799억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550)

(단위 : 억원, %)

구 분	'14(A)	'15안(B)	전년대비	
			B-A	%
총지출	136,371	140,431	4,060	3.0
○ 쌀산업	48,629	53,060	4,431	9.1
○ 원예·특작	21,539	21,555	16	0.1
○ 축산	15,162	14,589	△574	△3.8
○ 식품	7,723	8,401	678	8.8
○ 공통 등 기타	43,317	42,826	△491	△0.3

2. 2015년 중점 편성내용

<편성방향>

▣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 창조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집중
 - 농촌의 부존자원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 ICT융복합·R&D·종자산업 등 농식품분야 新성장동력 확충 등
- 쌀관세화, 영연방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농식품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되,
 - 영세·고령농을 위해 작지만 체감도 높은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개발 확대에도 재정투자를 강화
- 또한, 가축질병,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의 예산지원 강화

〈'15년 예산의 주요 특징〉

- ①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 (7,240억원 → 7,705, 증 6.4%)
 - 농업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관련 투자 확대 (788억원→868)
 -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의 부존자원과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57억원→127)
 - * 6차산업화 지구(지역특화형 6차산업 모델 구축, 3개소·1년 10억→6·3년 15억), 지역컨소시엄(6차산업 주체간 연대·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 10개소→20) 등
 - 산지축산형농장 : 산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 동물복지형 사육 환경, 체험관광 접목 등 산지축산 적용 모델 구축·확산(13억원→50)
 - ICT 융복합(321억원→323), R&D(2,055

- 억원→2,242), 생명산업(562억원→568) 등 농식품분야의 新성장동력 적극 확충
 - 농식품 분야의 생산·유통·소비 등의 단계에 ICT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19억원→31), 농지종합정보화(16→18)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210억원→225), Golden Seed 프로젝트(221→227), 수출전략기술개발(160→172),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376→383) 등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95억원→93), 생명산업기술개발(467→475) 등

② 쌀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3조 4,631억원 → 3조 6,180, 증 6.2%)

- 쌀 관세화 이후 농가 불안감 해소 및 쌀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소득보전 : 쌀고정직불(90만원/ha→100, 7,740억원→8,450), 유기지속직불(신규, 59억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기준소득금액 85만원→91, 1,403→1,638) 등
 - 경쟁력강화 : 쌀소비활성화(40억원→60), 들녘경영체 육성(25→45), 쌀산업선도경영체 교육훈련(신규, 11억원),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농기계구입자금 3%→2.5, 농업경영회생자금 3%→1 등) 등
- 영연방 FTA를 대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지원(1조 1,656억원→1조 1,301)
 - * '15년 예산은 기존계획대비 2,313억원 증액(지원 규모로는 2,577억원 증액)
 - 축산물이력제 : 소·돼지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판매과정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182억원→223)

-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지원 : 육성우목장 운영, 국내산 조사료이용 등 생산비 절감 노력 평가 후 우수조합 지원(신규, 100억원)

※ 참고 : 영연방 FTA 대책 재원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5,000억원 → 4,000, △1,000)감액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6,656억원→7,801)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물류비, 원료구매자금, 해외정보 제공, 제2파프리카 육성 등 지원 강화(5,110억원→5,867)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자금 융자, 수출 전문인력육성, 운송·검역·통관지원 등 (3,070억원→3,534)

-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 : 가공식품 수출업체 대해 원료구매·시설현대화자금 융자, 맞춤형 상품개발, 운송·검역·통관지원 등(1,711억원→1,959)

- **제2파프리카육성** :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생산·상품화·마케팅 등 지원(신규, 15억원)

③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2조 1,406억원 → 2조 2,237, 증4.5%)

○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관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 투자 확대(1조 2,653억원→1조 4,225)

* 다목적농촌용수개발(2,600억원→3,050), 수리시설 개보수(4,800→5,487), 배수개선(2,900→3,160),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163→263) 등

○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영농 안전장치 강화(5,504억원→5,749)

- **농업재해보험** :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완화(2,701억원→2,853)

* 품목확대(59개→62,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추가), 종합위험방식확대(배·단감→배·단감·사과), 수입보장보험(신규, 양파·포도·콩, 32억원)

* 종합위험방식 : 특정위험(태풍, 우박, 봄동상해)에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까지 보장하는 방식

* 수입보장보험 : 농작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397억원→490)

* 농업인재해보험 90만명→110, 농기계종합보험 4.2만대→4.6 확대 등

○ AI 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 종식을 위한 지원 확대(1,201억원→2,334)

- **가축질병대응기술** :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검역·진단 등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기술개발(37억원→58)

- **시도가축방역**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 방역·소독차량 구입, 공중방역수의사 등 전문인력 육성 등(770억원 →1,038)

④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3조 7,785억원 → 3조 9,140, 증3.6%)

○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직불제 확충**(1조 2,924억원→1조 6,396)

- * 쌀고정직불금(90만원/ha→100, 7,740억원→8,450)
- * 변동직불금(쌀목표가격 188,000원 적용으로 대폭 확대, 200→1,641)
- * 밭농업직불(지목 및 품목확대 : 지목상 밭 · 26개 품목→사실상 밭 · 전품목, 논이모작직불 40만원/ha→50, 1,347억원→1,929)
- * 유기지속직불(유기인증 5년간 전환 직불금→6년차 이후 1~5년차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3년간 지급)
-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3,213억원→2,826)
 - * 금리인하 : 농업경영회생자금(3%→1), 농기계구입 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귀농귀촌활성화, 6차산업창업(3%→2), 축산1%자금 확대(3%→1) 등 농식품부 관련 정책자금 14개 금리인하
 - ※ 참고 :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인 지원은 확대되나,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기준금리 인하(4.90%→4.33)에 따라 예산규모는 감액
- **농지연금** 확대(339억원→394) 등 농업인 노후지원 강화
 - * 제도개선 : 담보농지평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선택), 가입비 폐지,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만 65세 이상)

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4,277억원 → 4,565, 증 6.7%)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확대(3,241억원→3,367), 고령·사고 농가 등에 **가사 및 영농도우미** 지원(76→84) 등
 - * 연금보험 : 지원인원 확대(291천명→311),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지원한도액 상향(38,250원→40,950, 증 2,700원)

- * 가사 : (고령·취약) 15천가구, 12천원, 12일 / 영농 : (사고·질병) 17천가구, 60천원, 10일
-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42억원→42),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확대(21→24)
 - * 공동이용시설 :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18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

⑥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예산 확대 (7,723억원 → 8,401, 증 8.8%)

- 거점단지 조성, 기초 인프라 확충, 외식산업 육성 등 **식품산업 진흥** 투자 확대(3,374억원→3,437)
 - 전통발효식품 : 장류, 전통주 등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전통발효식품의 세계화 추진(78억원→125)
 - 식품기능성평가 : 국내 농식품 성분에 대한 기능성 평가지원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25억원→27)
 - 식품인력양성 : 식품산업 교육인프라 구축, 창업교육을 통한 유망 일자리 창출 지원(신규, 17억원)
-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 교육·정보 지원과 같은 **新소비자 정책 추진**(66억원→67)

⑦ 농산물의 유통 및 수급·물가안정분야 지원 내실화(1조 5,840억원 → 1조 6,216, 증 2.4%)

- **주요 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 대응

능력 강화

- 산지유통종합자금 : 산지유통조직에 원물 확보, 계약재배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규모화·전문화 유도, 수급조절·물가안정 도모(5,500억원→6,480)

* 계약재배 물량 : ('14) 18% → ('15안) 22

- **농산물 직거래 지원**(121억원→122) 등 新유통경로 확충,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420억원→470) 등 유통시스템 혁신 지원

* 정가수의매매 : 거래단위 규모화 및 경매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경매대신 미리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하는 방법

- ⑨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 강화
(1조 5,162억원 → 1조 4,589, △3.8%)

- FTA 대응 국내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내실있는 지원 대책 마련**

- (정부정책자금 융자금리 인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3%→1.8), 축산경영종합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한우 직거래활성화지원(120억원), 원유생산비 절감 우수조합 지원(100억원) 등

-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 등 가축방역 강화**
(2,615억원→3,044)

- 시도가축방역(770→1,038), 가축위생방역지원(331→397), 도축검사원운영(46→76), 가축방역(114→152), 구제역백신연구센터건립(63→153)

* 거점 소독·세척 시설(49억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30), 가금류 랜더링처리시설 보완(18),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68), 방역정보 DB 현행화(43) 등 신규지원

※ 축산업 분야 전체 재원은 감액되었으나, 축산 단체 요구 및 여야정 합의를 반영하여 정책자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5,000억원→4,000, △1,000)감액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시 예산 증액(1조 325억원→1조 759)

- ⑩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적극 발굴·반영**(9개 사업 - 458억원, 내역사업 - 632억원)

○ 對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버섯, 화훼, 유자차, 유제품) 집중 육성 지원(15억원)

○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격위험을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32억원)

○ 도로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계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12억원)

○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멘토링, 교육지원 등 one-stop **종합지원센터 운영**(10억원)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희망자의 거주지·영농기반 마련, 영농기술 습득 등을 위한 **입시 주거지 조성**(11억원)

○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다중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2억원)

○ **식품관련 미래 유망직업 창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지원(17억원)